

The Forefront of Landscape Architecture

- 12 Innovators Opening New Horizons of the Field

조경의 경계를 넘어: 조경의 영토를 넓혀나가는 주목할 만한 조경가 12인 (9)

글 · 자료제공 _ 박명권, 최이규 · (주)그룹한 어소시에이트 | mkpark@grouphan.com

지난해 10월 새로 문을 연 서울시청 신청사 입구 로비에 들어서면 1층에서부터 7층까지의 벽면에 조성된 수직정원을 볼 수 있다. 신청사 에코 플라자의 수직정원은 현재 세계 최대 면적의 수직정원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다고 한다. 장안의 화제가 된 이 실내 수직정원 설치로, 실내 유해물질 제거와 공기 정화 효과는 물론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심리적 쾌적함을 주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최근 도시녹화를 위한 사업들이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심지 내에 녹화할만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대도시의 경우 옥상녹화나 벽면녹화 같은 인공지반 녹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에도 도시 내에 생활권 공원면적을 1인당 1㎡를 늘리기 위해서는 약 10km²서울시 면적의 약 1.7%의 녹지가 필요한데, 높은 지가로 인해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들게 되어 서울시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자료참조}.

인공지반녹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선 경제적으로 건축물의 임대료 수입이 늘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도시경관이 향상되고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환경적으로도 환경교육의 기능은 물론이고 도시 생태계 복원이나 기후조절 같은 효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기술이 보급되고 비교적 대중화가 되어 있는 옥상녹화에 비해, 우리나라의 벽면녹화기술은 관수문제나 식물의 활착과 생장의 어려움 등 여전히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프랑스를 기반으로 유럽은 물론이고 아메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열사의 땅 중동의 모래사막에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도심지 인공벽면에 원시의 자연을 창조해 가고 있는 버티컬 가든Vertical Garden의 예술가 패트릭 블랑Patrick Blanc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대규모 도시설계Large Scale Urban Design _ Signe Nielsen
2. 해일에 대비한 갯벌 및 해안 생태 공원Salt Marsh Design _ Susan Van Atta
3. 좁은 도시면적을 이용한 레인가든Stormwater Treatment _ Mayer Reed
4. 도시의 빗물관리를 위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 _ Nette Compton
5.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성공적 모델Downsview Park _ David Anselmi
6. 생태복원, 재생 디자인Ecological Restoration _ Keith Bowers
7.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Walkable City _ Jeff Speck
8. 조경 이론Urban Design and Landscape _ Witold Rybczynski
9. 인공벽면녹화 기술Vertical Garden _ Patrick Blanc
10. 탄소제로 및 친환경 소재Life-cycle Design and low-impact material _ Michael McDonough Partners
11. 친환경 주거정원Sustainable Residential Design _ David Kelly, Rees Roberts Partners
12. 대규모 도시옥상농업Urban Rooftop Farming _ BEN FLANNER, Brooklyn Grange

인공벽면녹화 기술 Vertical Garden

패트릭 블랑

Patrick Bla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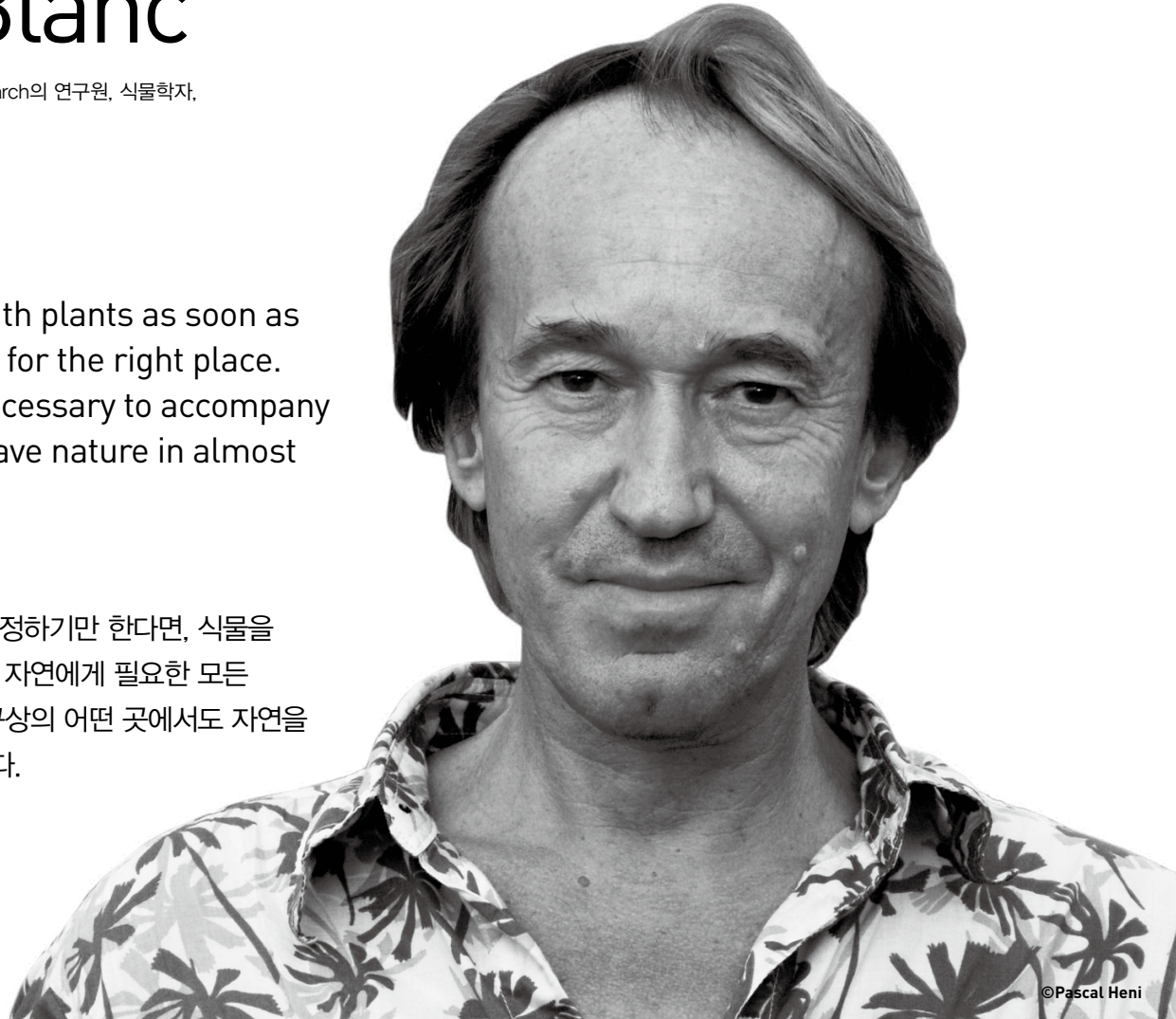
French National Centre for Scientific Research의 연구원, 식물학자,
『The Vertical Garden』저자

Everything is possible with plants as soon as
I choose the right plants for the right place.
If we do all the things necessary to accompany
nature it is possible to have nature in almost
any place in the world.

- Patrick Blanc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식물을 선정하기만 한다면, 식물을
이용해 어떠한 것도 가능합니다. 자연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준비해 준다면, 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도 자연을
재창조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패트릭 블랑



©Pascal Heni

인공벽면에 원시의 자연을 창조하는 버티컬 가드너Vertical Gardener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버티컬 가든One Central Park, Sydney,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버티컬 가든Alpha Park 2, Paris... 패트릭 블랑에게 붙는 '세계 최고'의 수식은 다양하다. 그러나 정작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누구나 이미 한 번 보았음직한 이 식물학자 겸 아티스트의 작품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버티컬 가든'이라는 탄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입면녹화' 혹은 '그린월' 등으로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그 풍부함과 다양성은 실로 열대우림의 한 부분을 벽 위에 걸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기에 그야말로 '버티컬 가든'이 적절한 표현이겠다.

패트릭 블랑은 프랑스 국립과학원French National Centre for Scientific Research의 연구원이며, 그는 버티컬 가든 때문에 본인이 '약간 더' 유명해졌다고 표현한 바 있다. 좁은 새장에 갇힌 새들을 공장 하늘로 풀어주고 하던 순수한 소년이, 19살 때 처음 여행했던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숲 속, 폭포나 바위 위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고 프랑스에 와서 이것을 재현해보기로 한 것이,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간 버티컬 가든의 소박한 시작이었다. 이제 어른이 된 소년의 사무실 겸 자택에는 거대한 버티컬 가든과 유리바닥 아래 대형 열대어 수족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마다가스카르 도마뱀과 말레이시아 개구리가 기어 다니고, 색색의 새들이 함께 동지를 틀고 날아다니며 살고 있다. 그는 하늘이 트인 중정에 샤워꼭지를 매어놓고, 눈이 오는 한겨울에도 항상 바깥에서 목욕을 한다고 한다. 스무 살의 첫 실험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파리 케브랑리박물관의 외벽에서 자라고 있는 온대 식물들은 패트릭 블랑 마냥 강하고도 경쾌하게, 계절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야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Quai Branly Museum, Paris, 2005 (photo _ 2012)

파리 케브랑리박물관, 2005년 완공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패트릭 블랑의 작업들은 대개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가장 인공적이고 척박한 환경에 등장한다. 주변의 인조 환경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작은 우주로서의 생태계는 철저히 인위적 작업임을 더욱 강조한다. 동시에 그는 주어진 공간 내에서 놀라운 정도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원시림의 일부를 그대로 떼어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신비하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은 도면에 그려진 평면적 패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수백 수천의 잎과 줄기, 뿌리, 꽃들이 만들어내는 합창이기 때문이다. 합창단에 도열한 하나하나의 식물들이 모두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함은 필수조건이다. 각각의 식물은 그 생리적 요구사항이나 물리적 형태에 있어서 제각각이지만, 마치 무작위로 배열된 듯한 패트릭 블랑의 팔레트는 알고 보면, 각 식물에 따라 수분, 바람, 광량, 온도의 변화, 인간의 간섭 등 환경요소들을 최적화시킨 철저히 계산된 수직 정원이다. 상부에서 각종 영양소가 가득한 물이 관수되면, 펠트를 적시며 흐르던 물은 하부의 흙통에 모여져 재활용된다. 수분의 공급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식물의 뿌리가 과도하게 성장하지 않고, 후면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노하우의 하나이다. 내음성을 가진 종과 내건성을 가진 종을 교묘하게 배열하며 외기의 혹독한 환경 변화에서도 스스로 회복성을 가지게 했기 때문에, 일 년에 두 번 정도 간단한 관리만을 요한다는 고도의 원예학적 설계 기술이 놀랍다.

자연 생태계에 대한 철저한 관찰이 담긴 패트릭 블랑의 저서 『The Vertical Garden』과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온갖 진귀한 기생식물과 수생·건생식물, 그리고 주변의 생태적 조건을 기록하고 정리해 둔 사이버 버티컬 가든이다. 그는 자신을 항상 보타니스트라고만 소개할 뿐, 식재 설계 혹은 원예 예술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연구와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까닭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론가 비틀드 립친스키는 일전에, 조경가와 조경디자인이 건축이나 예술보다 일반인들에게 인정받기 힘든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조경의 주재료는 살아있는 식물, 즉 자연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멋져봐도 원 자연의 심오한 아름다움에 비해서는 아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원한 대작인 옴스테드의 센트럴파크가 철저히 인공적인 개선과 계산에 의해 생생한 풍경을 구현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위대한 창작물로 인지하기 보다는 복잡한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낸 결과로 이해하곤 한다. 즉, 옴스테드의 작품으로 시작되었으나 물에 도열한 미국 느릅나무의 장엄함은, 결국 느릅나무가 긴 세월을 견뎌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작품에 대해 100%의 크레딧을 챙기는 건축가나 예술가와 달리, 조경가들은 어디까지나 식물과 3대 7 정도의 기여도를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



Patrick Blanc in the waterfall spray among
Elatostema, Munduk, Bali

발리의 천연 버티컬 가든 앞에서 패트릭 블랑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Christarium avec bureau de Patrick Blanc, Mur Vegetal, bibliotheque et rideau de racines de Cissus sicyoides

파리에 위치한 패트릭 블랑의 주택 겸 사무실

©Verticat Garden Patrick Blanc



패트릭 블랑은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듯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일찍부터 깨달은 것이 있다. 자유롭게 살려는 존재적 지향과 도시라는 환경에 갇힌 삶의 조건 사이의 대결에서 내 삶이 꾸러져나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시골의 전원적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정원 따위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대도시, 혹은 그와 반대로 인간에 의해 전혀 간섭받지 않은 순수한 자연이다. 다행히도 나의 인생에서는 이상과 삶이 맞아떨어졌다. 즉, 나는 도시에서만 머무르면서, 지구상의 가장 원시적인 자연을 여행한다.”

코네티컷의 숲과 들판으로부터 영감과 교육을 받았던 농부 출신의 옴스테드가 미국의 온대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무쌍한 경관을 구현했듯, 패트릭 블랑의 버티컬 가든 또한 단순한 예술적 감흥을 패턴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는 식물학에 대한 철저한 훈련과 오랜 기간 축적된 방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식물의 컬러와 형태에 기반한 식재디자이너가 아니라, 식물 하나하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적 연출이며, 언뜻 서로 어울리지 않는

식물들이 부대끼면서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공존의 드라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패트릭 블랑의 도시에 대한 애착을 다시금 이해할 수 있다.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질서를 바탕으로 유지해 가는 고밀한 환경, 바로 파리와 맨해튼과 같은 도시가 바로 패트릭 블랑의 메타포이다. 그의 작업을 올려다보는 우리들은 개성적인 식물들의 미묘한 어울림에 감동을 느끼며, 무언중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교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도시가 변화하듯 패트릭 블랑의 작품 또한 언제나 소멸과 재생, 그리고 탄력성을 염두에 둔 변화무쌍한 항상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자연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식물을 지탱하는 기반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하부에서 분해가 진행되는 동안, 상층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건의 노력이 경주된다. 나의 작업은 이렇게 자연을 관찰해 얻은 깨달음을 재현해내는 과정이며, 그와 동시에 인공환경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구현해내려는 시도이다.”

그는 예술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식물과 분리된 예술적 아이디어를 시도하지도 않는다. 거개의 예술이란 것이, 결국 어떠한 시대와 시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없어질 위험에 놓여있게 된다. 그러기에 예술품은 항상 보존의 노력을 동반하게 되고, 관람객은 어떤 시간에 얼어붙어버린 작품만을 보게 된다. 이에 반해 패트릭 블랑의 작업은 예술가의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식물이 가진 본래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장 선명하고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일 뿐이다. 머릿속에 이미 그려진 어떠한 이미지를 통해 작업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 죽고 스러져가는 과정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패트릭 블랑의 작업을 대할 때마다, ‘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을 경멸하고, 스스로를 ‘넓은 의미의 아티스트’라고 칭했던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패트릭 블랑과의 대담

진행 _ 최아규 · 그룹한 뉴욕 지소장

Q. 당신의 저서에는 열대어 수족관에 열정적이었던 한 소년이 식물학으로 관심을 옮겨가는 과정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이 예술의 형태로 표현되는 식물학적 작업에 영향을 주었나요?

A. 사실 저의 부모님께서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파리 근교에서 자랐는데 가족들은 열대식물이나 수족관에는 관심이 없었죠. 어머니는 가사 일을 하였고, 아버지는 정부 기관의 공무원이었는데, 식물학과와는 아주 동떨어진 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제 유년기의 조건은 지금의 저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단지 식물학만을 공부해 온 것도 아닙니다. 학창시절에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나중에 우연히 생물학과 열대식물을 전공한 것뿐입니다. 예술과 관련된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Q. 제가 앞의 질문을 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그렇고 그런 테크닉 위주의 입면녹화와 달리, 당신의 버티컬 가든이 보여주는 미학적 미묘함과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때문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관심으로부터 버티컬 가든이라는 예술 활동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특별한 전환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서서히 동시에 일어났을 뿐이죠. 어려울 때 식물과 수족관을 좋아했고, 커서는 생물학을 전공하구요. 제가 처음 만든 버티컬 가든은 12살 때, 수족관 물을 끌어올려 흘려보내면서 정화하는 생물학적 필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아홉 살 땐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식물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했을 따름입니다. 처음엔 수족관과 생물학 필터, 그리고 공부,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행. 저의 버티컬 가든 작업은 이러한 제 인생의 축적된 결과입니다.

Q. 당신의 작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했다고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이 시기의 환경에 대한 전반적 분위기에 동반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A. 저의 버티컬 가든이 자연 현상을 재현하는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는 말하자면, 제 작업은



Square Vinet, Bordeaux, 2007 (Landscape _ Michel Desvigne)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비벳광장 (조경설계 _ 미셸 드빈)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One Central Park, Sydney, model, Jean Nouvel

시드니의 원센트럴파크 모델. 장 누벨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식물 소재의 예술적인 배치를 통해 자연에 대한 영감을 던져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는 매우 다양한 종의 식물을 사용합니다. 두 달 전에 완성된 파리의 작은 프로젝트에서도 약 250종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버티컬 가든을 보는 이들은 좁은 면적 내에서 최고조의 종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지요. 전체적인 외형부터, 잎의 구조, 컬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식물들은 모두 독특합니다. 살아있는 식물들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본래 자연적인 면모이며, 이것이 곧 예술입니다.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생각이나 예술에 대한 생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고풍된 자연성만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식물의 예술적인 면도 함께 병행됩니다.

Q. 버티컬 가든에 대한 인기가 도시에 보다 많은 자연적 요소를 들여오고자 하는 관심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A. 지구상의 인구 중 과반수 이상이 이미 도시로 이주해 살고 있다는 사실은 100년 전에 대부분의 인류가 시골에 거주하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점점 자연과의 접촉 기회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저의 버티컬 가든은 마치 자연에 존재하는 절벽의 일부를 떼어낸 듯합니다. 콘크리트벽이 살아있는 대상으로 변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보다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적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보다 넓은 차원의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이 증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나 열대우림의 훼손과 같은 문제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시골 사람들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더 민감한 듯하고, 그래서 주위 환경에 자연을 들여오려는 욕구가 더 강한 듯합니다.

Q. 세계 곳곳을 다니셨는데, 당신의 여행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A. 예전엔 주로 열대 지방만을 여행하곤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프랑스령 기나, 그리고 남미나 아프리카의

나라들이죠. 그 때마다 수많은 열대우림을 경험하고 관찰했고, 제 작품의 영감은 그러한 자연적인 서식처로부터 나왔습니다. 토양 없이도 살 수 있는 식물들이 폭포나 절벽에, 그리고 나무의 수간이나 가지에 붙어사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초기 작업들은 대부분 실내 설치물이었습니다. 열대우림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을 유럽에서 키우려면 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한국 등지를 여행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토양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식물들을 조우할 수 있었습니다.

Q.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은 대개 식물의 뿌리나, 곤충, 습기 등을 멀리하려고 하지요. 버티컬 가든이 건물과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을 듯합니다.

A. 저는 대개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어제는 스위스 바젤에서 허조그와 드위롱을 만나 마이애미 미술관의 마무리에 대해 의논하고 왔습니다. 시드니에서는 장 누벨Jean Nouvel과의 프로젝트가 거의 막바지에 왔고, 그와는 이미 케브랑리박물관을 끝낸 경향이 있지요. 저는 건축가들과 함께 일하는데 이골이 나 있고, 그들도 저의 작업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대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척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콘크리트 벽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요. 자연의 한 부분을 건물에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복잡성을 알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꼽는다면?

A. 우선 바레인Bahrain을 들 수 있겠네요. 중동의 바레인에서는 여름에 섭씨 55도를 육박하고, 거기에 강한 바람이 동반됩니다. 정말 절망적인 조건이죠. 다 말할 순 없지만 그 외에도 많은 해결해야 할 난관이 있습니다. 지금 장 누벨과 진행 중인 시드니 프로젝트의 경우, 150미터 높이의 초고층 빌딩 입면에 거대한 버티컬 가든 면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람이 가장 문제죠. 그 정도 높이의 건물에서

바람의 강도는 상당합니다.

주차 건물 내 자연광이 전혀 유입되지 않는 상황도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독성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컨디션에서도 곳곳이 살아나갈 수 있는 적합한 종을 찾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추운 날씨 또한 문제입니다. 일본 가나자와의 2세기 미술관 외부에 설치된 버티컬 가든이 그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겨울 추위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여기서도 적절한 종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레인이나 두바이에서 살아남는 식물을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키예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제 프로젝트에는 극한의 추위 혹은 열사, 강풍이라든가 극단적으로 빛이 들지 않는 상황 등 항상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 신나는 일이지요.

Q. 자생식물이나 지역 토착종을 사용하십니까?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프랑스인이고, 서유럽에서는 절벽면에 붙어 자라는 흥미로운 식물들이 드뭅니다. 제가 디자인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은 아시아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저는 3주 전에 신야마구치 역사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이 위치한 타운은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산에는 무성한 숲이 우거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의 자생 식물들을 수집하기에 좋은 기회라 생각했고, 이것을 앞으로 2년 동안 기르고 번식시켜서 2016년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에 사용할 생각입니다. 야마구치현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팀과 저희 팀은 사흘 간 산야를 돌아다니며 식물들을 관찰하고 수집했는데, 당초 목표는 30~40종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115종에 이르게 됐습니다. 양묘장에서 번식되고 나면 그 때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례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드류고등학교Drew High School 프로젝트에서는, 베이지역과



Muharraq Green Gate, two months after installation, Bahrain, 2011

바레인의 그린 게이트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캘리포니아에서만 자라며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산종만을 사용하였습니다. 호주의 장 누벨 프로젝트에서도 역시 남동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생식물만을 적용하였고요. 역시 장 누벨과의 프로젝트였던 서울의 개인주택에서, 저는 북한산 숲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산에는 아름다운 양치식물들이 암벽에 붙어서 자라는데, 보통 이런 곳은 사람들 발길이 없고 알려져 있지 않죠. 실은 이 식물들은 버티컬 가든을 위해 매우 훌륭한 종들이예요.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저는 가능하다면 그 지역의 토착식물들을 수집하고 번식시켜 제 작업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사람들이 버티컬 가든의 식물들을 만지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버티컬 가든에서 촉감을 통한 사람들과의 교감은 중요하니까?

A. 예, 물론이죠! 에펠탑 근처에 위치한 케브랑리박물관에 설치된 버티컬 가든은 보행로에 면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 찍기 좋아하는 곳이에요. 식물의 벽 앞에서 서서 마치 누워서 찍은 듯한 포즈를 취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 손길이 잦은 곳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 특별히 더 회복력이 강한 식물들을 사용하니까요. 사람들은 이끼를 만져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이 큰 해가 되는 것은 아니예요. 물론 따끔거리는 가시 돋친 잎을 가진 식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잎을 뜯는다 해도, 식물은 다시 자라기 마련이라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다 가깝게 식물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하는 것이죠

Q. “사람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자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 중 가장 의외의 장소는 어디라고 꼽으시겠습니까?

A. 우선 주차 건물의 내부와 같이 철저히 기능 위주로 계획된 건물에서, 버티컬 가든을 마주치는 경험은 색다른 것입니다. 저는 대개 도시 한가운데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도시 환경에서 나고 자랐고, 학생 시절에는 술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매우 도시적 환경 속에 깃들여있는 식물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파리의 한 전시에서 천장에 매달려있는 식물들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대개 ‘여기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고, 저기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식물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을 실현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Q. 당신이 상상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은? 보다 많은 식물이 포함되나요?

A. 영화 아바타를 보면, 공중을 떠다니는 섬의 다양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지난 10~20년간 많은 건축 프로젝트들이 입면을 이용한 정원, 그린브리지, 그린월, 그린, 그린, 그린...모든 게 그리스로 덮여있습니다. 도시에서 우리 대부분은 공동주택에 삽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인류가 오래 전 살았던 원초적인 동굴 주거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동굴에는 당연히게도 수직적인 벽면이 있고, 식물들로 덮인 곳은 입구 근처에 국한됩니다. 미래에 보다 많은 도시와 타운들이 보다 많은 식물들과 버티컬 가든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우리는 우리의 주거지가 벽체로 구성된 동굴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La Robe vegetale with Jean-Paul Gaultier

패션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와의 협업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Private House, Seoul
서울의 한 개인 주택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Miami Art Museum, model
(architect _ Herzog & de Meuron)
마이애미 아트 뮤지엄 모델 (건축 _ 허조그 & 드류론)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안 됩니다. 콘크리트는 석회암이 변형된 것에 지나지 않죠. 물론 우리는 보다 많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버티컬 가든이나 그린월이나 혹은 녹색 천장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바타종족이 아닙니다. 도시는 도시입니다. 도시에는 아름다운 건축이 있고, 그것은 아름다운 석재와 매우 아름답게 가공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석재와 콘크리트의 벽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식물로 덮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타는 원숭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굴에 살던 인간입니다. 저에게 미래도시란, 돌과 콘크리트와 유리가 식물들과 어울려 보다 조화롭게 배합되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Q. 패션부터 건축까지 여러 분야에서 작업을 해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의의가 큰 창조적 협업을 꼽으신다면?

A. 패션 쪽에서는 장 폴 고티에와 스텔라 매카트니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패션은 매우 흥미로운 분야이지만 건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건축에 비한다면, 패션은 매우 한시적인 것이죠. 건축은 적어도 몇 년을 고려해야 하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작업이고요. 저에게는 이 대비가 모두 매력적입니다. 저는 스스로 재밌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만 맡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가 다 흥미롭습니다만, 특히 건축과 도시에 대한 작업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파트너가 반드시 건축가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레인 문화부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 초청받은 적이 있는데, “패트릭, 우리 도시를 둘러보고, 버티컬 가든을 할 만한 장소를 정해봐요.”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경계에 있는 한 장소를 정하고, 이곳의 버티컬 가든이 양 도시의 단절된 역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낮은 건물을 버티컬 가든으로 감싸고, 하나의 문을 통해서 통과하도록 만든 거죠. 해가 갈수록 단일 건물 보다는 도시적인 규모에서 관심을 가지고 버티컬 가든을 조성하는 작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Q. 당신의 드림 프로젝트를 꼽는다면?

A.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드림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지금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매우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허조그 드류론의 미술관입니다. 마이애미 아트 뮤지엄에는 15~20미터에 이르는 기둥들이 있고, 저는 이것을 식물로 감쌌습니다. 기둥을 감싸는 시공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70여 개에 이르는 기둥들마다 적절한 식물의 배합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화가 있으면서도 각각이 독특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0~30미터 높이라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버티컬 가든이 될텐데, 20미터 이상 기어 올라가는 식물들을 이용한 작업이 드림 프로젝트가 되겠죠.

저는 식물학자입니다. 과학자로서 식물이 어디서 잘 자랄 수 있고, 어디서 자라기 힘든지 압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어떤 식물이 적합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식물을 선정하기만 한다면, 식물을 이용해 어떠한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더운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추운 곳 등 다양한 장소에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기에 매년 프로젝트가 드림 프로젝트였고,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조건이 주어지겠지요. 자연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준비해 준다면, 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도 자연을 재창조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드림입니다.

Q. 앞서 북한산과 서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도시와 자연에 대한 인상은 어땠나요?

A. 서울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에는 거대한 바위들, 그 사이엔 진달래가 절벽에 붙어 분홍빛으로 피어있기도 하지요. 저에게 매우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제 책에는 이 야생의 버티컬 가든을 찍은 북한산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산에 자라는 고사리와 양치식물들도 신기할 따름인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식물들은 열대 기후에서만 자란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하 20~30도까지도 떨어지는 서울의 추운 겨울을 고려할 때,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저는 동대문의 24시간 야시장도 정말 좋아하고요. 청계천변을 따라서 변해버린 풍경들,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도 놀랍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가 본 서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녹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던 도시에서 불과 3~4년 만에 강이 열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이 모든 녹음과 그곳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불과 몇 년 내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모두 놀랍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보다 아열대에 가까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아열대와 온대 기후의 식물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제가 본 것 중 식물들로 가득 덮여있던 절벽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버티컬 가든에 강한 영감을 주는 장소가 가득한 곳입니다.

Patrick Blanc



Pont Max Juvenal, Aix-en-Provence, Mur Vegetal and traffic jam, Cote d' Azur 2008

프랑스 코트다쥐르 지방에 위치한 막스 쥐베날 교량 전면부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Rue Belliard, Brussels, 2010

벨리야르가의 건물, 브뤼셀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Q. You described in your book the transition from the aquarium to botany as a child and it was fascinating. Did your childhood environment or family background inspire you to do botanical works in an artistic sense?

A. Actually my parents were totally different. I grew up in a town very close to Paris and my parents were not involved in tropical botany or aquariums. No, my mother was at home trying to raise us and my father was in the ministry in France and very far from botany or anything like that. So my family environment did not lead me to be interested in plants and aquariums.

Q. There are so many botanical gardens which are not more than ordinary and technical, but we find your work to be mystical and enchanting. When did the transition happen from your scientific knowledge and research to more artistic activity of vertical gardening?

A. There wasn't actually a sudden transition; they grew all together. As a child I was always interested in plants and aquariums ending up with studying biology later at university. On the

other hands, I began my first vertical garden in my parent's home when I was about 12 years old and it was primarily conceived as a biological filter above my aquarium.

When I was a young student at university, probably 19 years old, I went to Malaysia and Thailand for the first time to look at the forest and the plants that were growing almost any environment you cannot even imagine. It was a step by step evolution. First the aquarium and biological filter and then studies and then field trips to South East Asia. So it was progressive work that led me to create vertical gardens

Q. You've said that there was a sudden response and interest in your work in the early 1990s and that the same work was not received with as much enthusiasm several years earlier? Would you attribute this to the general rise of environmental awareness?

A. People think I'm more interested in nature and surely I try to replicate nature in my gardens, but what I also try to do with my vertical gardens is to evoke nature while

creating an artistic arrangement of plant species. I use many different species in my work. I finished a small vertical garden two months ago in Paris where I used 250 different species. So you see there is always the highest level of biodiversity in my vertical gardens which means different shapes of plants, different structure of leaves, and different color of leaves. If it's beautiful with living plants it's a kind of natural and artistic expression. I think people's perception of nature as well as art have changed over time; people don't only appreciate nature, but art at the same time.

Q. Does the popularity of your work indicate changing attitudes towards the inclusion of non-human life in the city?

A. The problem is that now more than half the people in the world are actually living in towns so this is quite new compared to 100 years ago when more people were living in the countryside, but now they have less and less contact with nature.

When you see a vertical garden it's like a piece

of cliff from nature; the concrete turns to a living thing. People have less contact with nature because they live in towns, but by contrast they also know more about large environmental issues than before, about the problems of global warming, and the disappearance of tropical rain forests. I think that people from towns are more sensitive to these issues and want to try to bring back nature into the town.

Q. You've traveled all around the globe; what inspire you the most in those tr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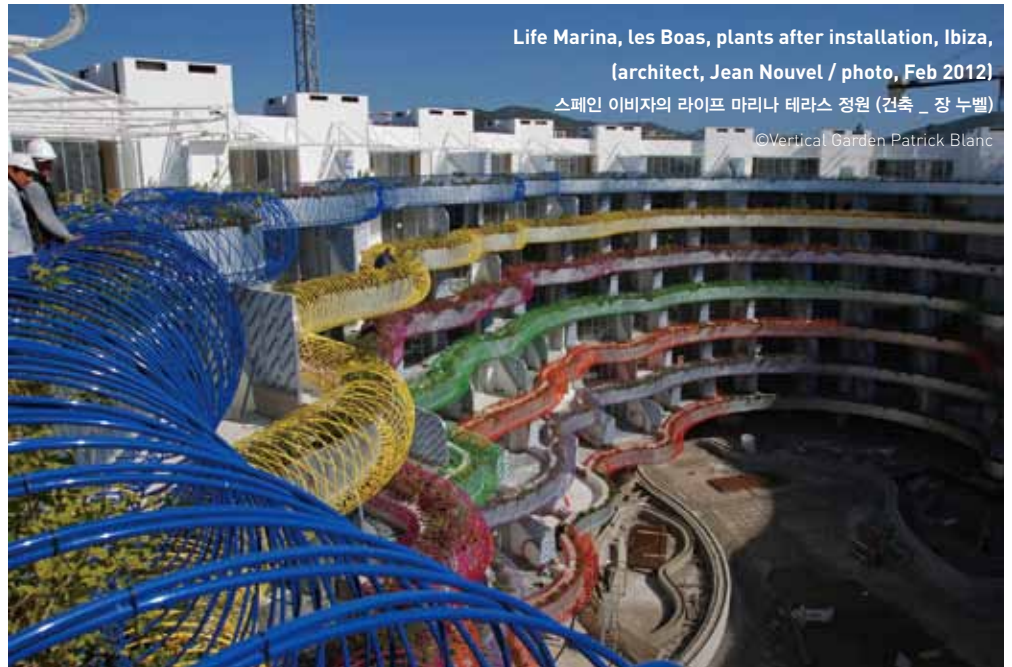
A. In the beginning, I traveled to only tropical countries, especially South East Asia, French Guiana, and countries in South America, and Africa. So after many years, I saw many tropical rain forests and inspiration came from all these natural habitats where plants were living without soil, on waterfalls, cliffs, tree trunks, and tree branches. So in the beginning it was mostly for indoor vertical gardens because tropical plants can only acclimatize indoors in Europe. Later in the 1990's I also visited temperate countries like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n later I traveled to South Korea and more and more I visited temperate countries and saw plants living out of the soil here as well as in tropical countries!

Q. Architects and engineers generally try to keep things like roots, bugs and water away from their buildings; is it ever difficult to convince collaborators that these elements can happily coexist with architecture?

A.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very important architects all over the world. Yesterday I was in Basel to meet Herzog and de Meuron because we are finishing a museum in Miami, FL. I am finishing a work in Sydney with Jean Nouvel; I have already worked with him in front of Musée du quai Branly. I work with many architects so it's not so difficult because if architects ask me to collaborate with them it means they know what kind of work I can do and it's not simply to paint a concrete façade into a green thing, moreover to try to introduce a piece of nature into their work.

Q. What was your most challenging project?

A. It depends. As you know, I am French and in



Life Marina, les Boas, plants after installation, Ibiza,
(architect, Jean Nouvel / photo, Feb 2012)
스페인 이비자의 라이프 마리나 테라스 정원 (건축 _ 장 누벨)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Western Europe we have not so many interesting species growing on cliffs, the exquisite ones. I use mostly plants from Asia. Three weeks ago I was in Japan where I have a project for Shin-Yamaguchi Station. It's in a town surrounded by mountains that are covered by forests, so it's a good opportunity to collect native plant species that we'll propagate for two years. Three weeks ago I was in Yamaguchi with all the team of Yamaguchi prefecture and we went into the forest for three days and I hoped to collect about 30 or 40 species, but finally ended up collecting 115 different species that will be propagated and then we'll start on the vertical garden.

In California, the Drew School project in San Francisco uses only plants that are native to the Bay area and around California, but no other part of the world. In the high-rise project with Jean Nouvel, I used only plants native to South East Australia. I did a project with Jean Nouvel some years ago in Seoul and I loved the forest of Bukhansan. In Bukhansan, you have some very beautiful ferns growing on the rocks with no one going there; it's a pity because they're very good plants for vertical gardens. Everywhere in the world, when it is possible, I use native plants propagated locally.

Q. Do you encourage people to touch the plants? What role does tactility and human interaction play in your vertical gardens?

A. Yes, yes! Near the Eiffel tower in Paris, at the Musée du quai Branly, the vertical garden comes down to the street and many people like to take photos that look like they are lying down, but they're actually vertical. It's not a problem even when people can touch the plants because I try to use species that I know are resilient. People especially like to touch mosses and that's not a problem either, but in other places some plants have spiny leaves and in this case you don't want people to touch the plant. Even if someone destroys some leaves it's not a problem because the plants will grow again.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allow contact with the plants.

Q. You once said, "I like to reintegrate nature where one least expects it." Which project do you consider to be the most unexpected?

A. One example is the car park where you are not at all expecting to see a vertical garden. I like the projects in the middle of towns. I was born in a town and when I was a student I would spend many nights outside in bars. I like when you can see plants in town environments. I did an exhibition in Paris with blades of green plants hanging from the ceiling; you are not waiting for this. Many different places are interesting. It's interesting to see that nature can come and not only survive, but thrive in environments where you are not at all expecting it. So, I like this.

Q. Does your vision for the future of cities include more living surfaces?

A. When you look at the film Avatar, you see plants in all conditions of life hanging from floating islands in the air. For the last 10 or 20 years you see many architecture projects with green facades or green bridges or green walls, green, green, green – everything is green. In towns we live mostly in apartments, which are something like our original habitats in cave. In caves, in nature, it was like this; vertical walls more or less covered by plants at the opening. I think in the future, cities and towns will include more and more plants and vertical gardens will be more and more important. But we are not to forget that we are originally all inhabitants of caves and caves are simply vertical walls of stone, and concrete is a type of transformation of original limestone.

Of course I think we will have more green spaces. They may be vertical gardens or green walls or green ceilings but maybe not quite the same as Avatar. But a town is a town. In towns there is very beautiful architecture with very beautiful stone or very beautifully treated concrete and they will remain stone and concrete walls. So you don't have to cover everything with plants of course; we are not monkeys climbing in trees, we are human beings living originally in caves. I'm sure it will be a more of a harmonious mix of plants and stone and concrete and glass in towns of the future.



Maison Trevier, Garden Limestone Cave entrance, Carpentras, Cote d' Azur, France 2012

프랑스 코트다쥐르의 트레비어 주택. 정원 내 석회암 동굴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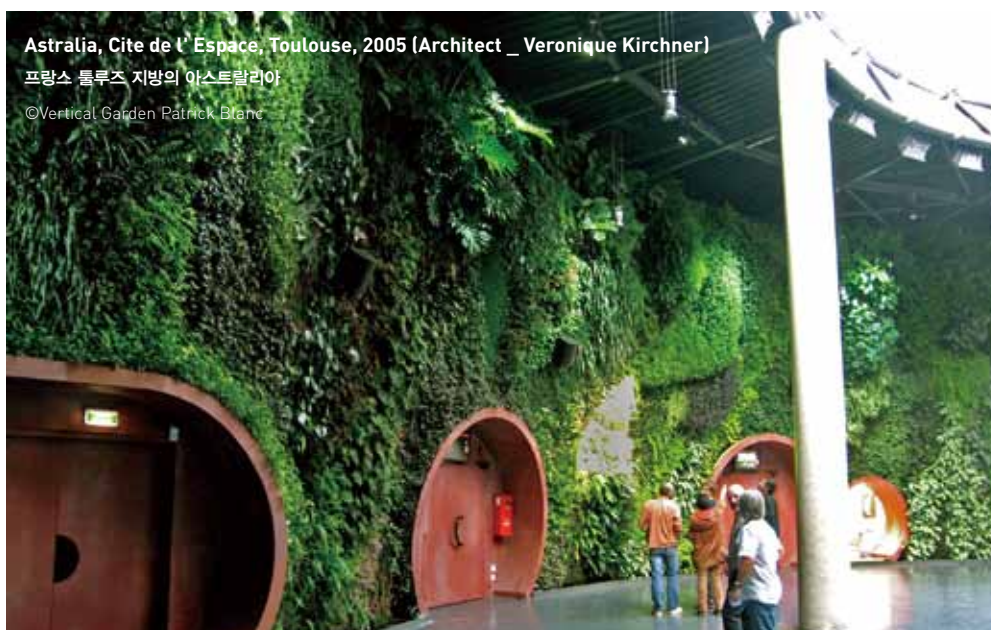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Creteil Soleil, la Canopee de Lianes, Paris

파리 크레텔 솔레유를 위한 스케치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Australja, Cite de l' Espace, Toulouse, 2005 (Architect _ Veronique Kirchner)

프랑스 툴루즈 지방의 아스트랄리아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Q. You've worked across many disciplines from fashion design to architecture; what type of creative collaboration is the most personally rewarding?

A. For fashion design, I worked with Jean Paul Gaultier and with Stella McCartney. It was a pleasure, but it's a different experience with architecture because architecture is not temporary at all, it's a permanent work for many, many years. For me, everything is interesting. If I accept the work, it means that I consider it to be interesting, but working with architects is very interesting. But I don't only work with architects, for instance, in Bahrain the ministry of culture invited me to a conference and they told me, "Please, Patrick walk through our town and select a place to make a vertical garden." So I selected a place between the old town and the new town as a kind of a green bridge separating the history of the city. I selected the place and designed the vertical garden wrapping an old building with a kind of door that goes through. In more and more cases I'm invited to have an idea to create a green work in town. Of course when it's a project concerning a high building like the one in Sydney with Jean Nouvel, it is a project with an architect, but sometimes I'm invited to do vertical gardens in one specific place and I choose the site, design the structure, and choose the plants.



Nouvel-Tower, Praterstasse, Vienne

(photo _ Roland Halbe)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누벨 타워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Cafe Trussardi, Milan

밀라노의 카페 트루사디

©Vertical Garden Patrick Blanc

Q. What would be your dream project?

A. Every new project is a dream project. Now I'm doing a very challenging project in Miami with Herzog and de Meuron. I'm covering columns with plants about 15 to 20 meters high around the museum. It's quite challenging to cover and try to have a kind of harmony because when you have 70 columns around the museum you have to find right composition of plants to express something natural through the different columns. It will be the highest vertical garden in the world at 20-30 meters high. It's a dream to work on climbing plants more than 20 meters high. I'm a botanist, and as a scientist I know where the plants can grow, where they cannot grow, which are the species that can grow in what place. Everything is possible with plants as soon as I choose the right plants for the right place. I'm happy to have worked in so many places, like the very dark places or the highest places or the coldest or the warmest places. I have all these projects now, so every new project is a new dream and I cannot imagine what will be the next one. If we do all the things necessary to accompany nature it is possible to have nature in almost any place in the world. All my new projects are new dreams.

Q. You've already mentioned Bukhansan and Seoul; could you tell us your impression of Korean cities and nature?

A. I visited quite a few places in Korea because I had a project in Seoul. Korea is a very beautiful place. You have all these huge boulders and the Rhododendrons, all the pink flowers growing vertically on the rock. It was an incredible sight. And I put this photo in my book Vertical Gardens. I told you that I saw a fern in Bukhansan and was very surprised because I thought it only grew in tropical countries and in Bukhansan as you know in the winter you have -20, -35 degrees. It was definitely surprising for me.

I also love the Dongdaemun night market that's open for 24 hours. Everything changed along the Chunggyecheon river gardens and people now like walking along the garden. About ten years ago I saw an environment with nothing green and suddenly about 3 or 4 years later I saw this river open and everything was changed. You have all this green and you can walk along the river again and for me it was really surprising to see this after only a few years.

Also, in Korea I had the opportunity to go to Jeju-do, a more tropical environment. In Jeju-do, it's between tropical and temperate flora and I remember cliffs covered by plants. I think that you have a very beautiful country and it's inspiring for vertical gardens.